

2020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정답

1	⑤	2	②	3	⑤	4	②	5	③
6	⑤	7	⑤	8	④	9	④	10	④
11	③	12	⑤	13	③	14	④	15	④
16	②	17	⑤	18	⑤	19	⑤	20	①
21	①	22	⑤	23	②	24	①	25	⑤
26	③	27	③	28	④	29	③	30	③
31	④	32	③	33	①	34	④	35	④
36	①	37	③	38	②	39	①	40	④
41	①	42	③	43	③	44	②	45	②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강연자는 『승정원일기』가 앞으로의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의 삶과 연관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강연자는 ㉠의 사진을 제시하기 전 『승정원일기』의 날씨 기록이 상세함을 밝히고, ㉡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날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은 『승정원일기』의 날씨가 기록된 부분의 사진임을 알 수 있다.

④ ㉢은 『승정원일기』의 날씨 기록과 현대 기상 자료를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강우량 등급과 관련이 있는 자료는 ㉢이다.

⑤ ㉣을 제시한 이유는 『승정원일기』의 날씨 기록과 현대 기상 자료를 비교하여 조선 시대의 비가 오는 시간대와 장마 주기 등이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승정원일기』의 기상 기록이 현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 2’는 강연 내용인 기후와 관련하여 『승정원일기』 외에도 조선 시대의 날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3’은 왕명 출납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연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말하고 있을 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학생 1’은 『승정원일기』의 번역 작업에 AI가 투입된다는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있고, ‘학생 3’은 『승정원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 화법·작문 **

4.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학생 3’은 작년에 했던 캠페인 부스를 떠올리며 이번에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부스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과학 시간에 했던 실험을 떠올리며 이끼 필터를 넣은 공기청정기 제작 부스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① ‘학생 1’은 토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전체 순서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③ ‘학생 2’는 ‘학생 3’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을 뿐,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⑤ ‘학생 4’는 ‘학생 3’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며 동의하고 있다.

5. [출제의도] 토의 내용 파악하기

토의에서 학생들은 이끼 공기청정기의 제작 과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① ‘학생 2’가 올해 마을 축제의 주제를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라고 말하고 있다.

② ‘학생 3’이 이끼 필터가 화학적 필터보다 미세 먼지 감소율이 더 높았던 실험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⑤ ‘학생 3’이 작년 축제 때 캠페인 활동을 해보았으니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부스를 운영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나머지 학생들이 동의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 지식을 나눌수록 마을은 건강해집니다.’에는 지식 나눔이라는 동아리의 활동 취지가 드러나고 대구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끼 공기청정기 만들고’에는 부스에서 하는 체험 내용이 드러난다.

① 부스에서 하는 체험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고 대구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동아리의 활동 취지가 드러나지 않았고 대구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대구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부스에서 하는 체험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7.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본문’에서 이끼 공기청정기의 작동 원리는 설명하지 않았다.

① ‘표제’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마을과 함께 나눈다는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 드러난다.

② ‘부제’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끼 공기청정기를 제작한다는 활동 내용이 드러난다.

③ ‘전문’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등을 밝히며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④ ‘본문’에서는 동아리 회장과 마을 주민의 인터뷰를 제시했다.

** 작문 **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학생의 초고’에는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때의 어려움이 언급되지 않았다.

① 1문단의 ‘지난달 ~ 중단되었습니다.’에서 클라우드 펀딩의 활용을 건의하게 된 상황을 밝히고 있다.

② 2문단의 ‘클라우드 펀딩은 ~ 말합니다.’에서 클라우드 펀딩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③ 2문단의 ‘학생회가 ~ 진행합니다.’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때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는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나)-1은 클라우드 펀딩 참여에 만족한 이유에 대한 설문 자료이다. 따라서 (가)와 (나)-1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1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나)-1은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면 지역 사회에 기여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는 3문단의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⑤ (나)-2는 클라우드 펀딩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나와 있는 자료이고, (다)는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때 ‘프로젝트 의무 공개 제도’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뷰이다. 이를 활용하여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할 필요성을 덧붙일 수 있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때의 장점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을 ‘그리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① ㉠은 부사격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소방서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은 행위의 주체가 학생회이므로 능동 표현인 ‘사용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희망하는’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에는 ‘참여하기를’을 추가한다.

⑤ ㉣의 앞에는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고, ㉣의 뒤에는 클라우드 펀딩을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클라우드 펀딩의 종류’를 언급한 ㉣은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으므로 삭제한다.

** 문법 **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 탐구하기

이 글에 제시된 음운 변동 중 ㉔에는 거센소리 되기, ㉕에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만형[마형]'은 'ㄷ'과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므로 ㉔에 해당하고, '식물[싱물]'은 'ㄱ'이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㉕에 해당한다.

① '창밖[창박]'은 음절 끝의 자음 'ㄱ'이 'ㄱ'으로 발음된다. '능력[능녁]'은 비음화가 일어난다.

② '놓다[노타]'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다섯[다선]'은 음절 끝의 자음 'ㅅ'이 'ㄷ'으로 발음된다.

④ '쓰--+어→씨[씨]'는 모음 탈락이, '법학[버팍]'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타--+아라→타라[타라]'는 모음 탈락이, '집념[짐념]'은 비음화가 일어난다.

12. [출제의도] 음운 변동 탐구하기

'섞는[성는]'은 음절 끝의 자음 'ㄱ'이 'ㄱ'으로 바뀌어 후,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㉑의 예에 해당한다.

① '굽히지[구피지]'는 거센소리되지만 일어난다.

② '작년[장년]'은 비음화만 일어난다.

③ '얇고[안코]'는 거센소리되지만 일어난다.

④ '장미꽃[장미꼇]'은 음절 끝의 자음 'ㄷ'이 'ㄷ'으로 발음되는 음운 변동만 일어난다.

13.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적용하기

'마당의 눈이 희다.'에서 '희다'는 ㉑에 따라 어간 '희-'에 어미 '-어'가 결합해 '희어'로 적는다.

14. [출제의도] 시간 표현 탐구하기

ㄹ의 '적었었다'는 '적다'에 선어말 어미 '-었었-'이 결합된 말로, 현재와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⑤ '자다'는 '자다'에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된 말이지만, 과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다.

15.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재어 보아라.'는 '자, 저울 따위의 계기를 이용하여 길이, 너비, 높이, 깊이, 무게, 온도, 속도 따위의 정도를 알아보다.'의 의미이므로 재다-㉑의 용례에 해당한다.

** 사회 **

□ 출전: 이준구, 『경제학원론』

1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5, 6문단에서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 부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의 오른쪽에 '예금'으로 기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부채로 기재되는 것은 '은행이 다른 금융 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온 내역'이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① 2문단에서 은행이 금융중개 기능을 통해 금융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예금창조는 화폐를 창출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4문단에서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는 과정에서 예금 통화라는 화폐 창출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자본 및 부채의 내역과,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의 내역이 기록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은행은 자금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를 가지고, 조성된 자금이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금세공업자가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사례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은행이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다.

1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금창조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는 하지만, 이는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빚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갚아야 할 빚도 그만큼 늘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새로운 예금을 만들어 낸다고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 즉 예금을 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A]에서 은행이 지점 조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경상 운영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예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경상 운영비가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① ○○은행의 영업 이익은 예대 금리 차에 의한 수익 22억 원에서 경상 운영비 12억 원을 차감한 10억 원이다.

② ○○은행이 얻은 수익 22억 원은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로 자금을 운영하여 발생한 것으로,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 40억 원에서 예금의 이자로 지급한 18억 원을 뺀 것이다.

③ ○○은행의 대출 금리는 평균 4%, 예금 금리는 평균 2%이다.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높은 이유는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 차입자의 신용도에 맞춰 위험 할증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④ [A]에서 만일 은행의 대출 손실이 영업 이익을 넘어선다면 은행은 자본금까지 잠식당하게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대출 손실이 12억 원이 발생했다면 대출 손실이 영업 이익을 넘어설 수밖에 없으므로 ○○은행은 자본금까지 잠식당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20.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㉔는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을 의미한다.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을 의미하는 어휘는 '조정'이다.

** 갈래 복합 **

□ 출전: (가) 윤동주, 「눈 오는 지도」
(나) 김종철, 「만나는 법」
(다) 정약용, 「떠 있는 삶」

21.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 '아무도 없다',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등을 통해 순이의 부채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지 않았습시다',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 등을 통해 현실에서의 어머니의 부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에서 글쓴이는 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 화자는 순이를 따라가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⑤ (나)에는 어제라는 집에 사는 어머니와 만나는 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 외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에는 떠 있는 삶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 있을 뿐,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22.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화자는 눈이 녹으면 꽃이 피고 꽃 사이로 순이를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마음에는 눈이 내릴 것이라 하고 있다. 화자는 순이를 찾아 나서고 싶어 하지만 순이를 만나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일 년 열두 달 마음에 눈이 내리는 이유는 순이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B]에서 화자는 '어제', '오늘', '내일'을 통해 어머니의 죽음을 미루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C]에서 화자는 '어제라는 집'을 통해 돌아간 어머니와 만나는 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 만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① [A]에서 화자는 어머니에게 '내일은 언제 오나요'라고 묻고, 어머니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 지'라고 답하고 있다. [B]에서는 '어제의 것들'이 화자에게 '애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묻고, 화자는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 걸요'라고 답하고 있다.

③ [A]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B]에는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던 경험이 드러나 있고, [C]에는 만나는 법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24.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가)의 '편지'는 순이가 떠나기 전에 화자가 일러둘 말을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이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의 '전갈'은 어머니의 상황을 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급한 전갈을 받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러 고향으로 내려가므로, 화자가 대상을 만나러 가는 계기가 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편지'는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것이지, 순이의 소식을 전해 주는 소재는 아니

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다)에서 글쓴이는 ‘꽃모종을 심고 약초 씨앗을 뿌리며 샘을 파고 못과 도랑을 만들고 바위를 세우며 사는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삶의 덧없음을 슬퍼하지 않고 떠 있는 삶을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나산 처사’가 자신이 사는 집을 ‘떠 있는 집’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삶이 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 떠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근원적인 긍정에 도달했기 때문은 아니다.

② ‘나산 처사’가 ‘대충 짝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낡은 밧줄로 엮어 놓아 암자를 세운 것은 자신의 삶이 덧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③ 글쓴이는 ‘어부는 떠다니며 고기를 잡고, 장사꾼은 떠다니며 이익을 얻습니다.’라고 말하며 떠 있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뿐, 자신이 만나는 대상이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다.

④ 글쓴이는 ‘고기는 부레로 떠 있고, 새는 날개로 떠 있고, 물방울은 공기로 떠 있고’라고 말하며 천하에 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 뿐, 존재의 무상성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현대소설 **

□ 출전: 이기호,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

2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나는 남자의 인척 거처가 그때까지도 무사히 남아 있기를 바라보았다.’를 통해 ‘나’가 권순찬의 인척 거처가 권순찬이 돌아갈 때까지 무사히 남아 있기를 바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권순찬이 502호 할머니를 만나는 장면은 없으며, ‘저는 원래 그 할머니한테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를 통해 권순찬이 502호 할머니에게 자신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그러나 저러다가 말쑤지, 했던 남자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몇 날 며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를 통해 ‘나’는 권순찬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추론하기

권순찬이 입주민들의 선의를 거부하자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돈 것으로 보아, 권순찬을 도와주려던 입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참좋은 마트’ 사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권순찬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이는 권순찬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주민이 건네는 돈을 거부하는

권순찬의 모습을 통해 권순찬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좋은 마트’ 사장이 권순찬이 겪고 있는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여 나에게 권순찬의 사연을 들려주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저는 김석만씨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일을 해결하려고요……’를 통해 권순찬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석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고전시가 **

□ 출전: (가)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나) 남석하, 「초당춘수곡(草堂春睡曲)」

29.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굽이굽이 새롭구나’, ‘진훤을 막는도다’ 등과 (나)의 ‘아아 내 일이야’, ‘별천지가 여기로다’ 등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나)의 ‘농부’는 봄이 와 들일을 해야 하는 인물로, 화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로 볼 수 없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물가의 외로운 술’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므로, 자연에 귀의하지 못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

① ㉠은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② ㉡은 화자를 둘러싼 자연 경관이 누군가 그려낸 것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③ ㉢은 물결 소리가 속세의 시끄러움을 차단하므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 기술 **

□ 출전: 임석구, 홍경호, 『최신 컴퓨터 구조』

3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서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CPU가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3문단에서 캐시 기억장치는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캐싱은 주기억장치 데이터의 일부를 캐시 기억장치에 복사해 두고 CPU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주기억장치의 데이터 용량(2ⁿ)이 64(2⁶)개의 워드이고 하나의 블록을 구성하는 워드의 수(K)가 4이므로, 이 주기억장치의 데이터는 총 16(2⁶/4)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지며 각 워드는 6(n)비트의 주소로 지정된다. 또한 하나의 라인에는 하나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캐시 기억장치의 데이터 용량의 워드의 수(M)가 16이므로 라인(M/K)은 4(16/4)개가 만들어진다.

34.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원리 이해하기

<보기>는 CPU가 주소 ‘001011’의 데이터를 요청한 상황으로 이때 일어나는 캐싱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요청 주소의 라인 필드(10)를 이용하여 캐시 기억장치의 해당 라인(10)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태그 필드 값(00)을 CPU가 요청한 주소의 태그 필드 값(00)과 비교한다. 이때 두 태그 필드 값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캐시 미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주기억장치에서 요청한 주소의 데이터가 포함된 ‘b, l, u, e’ 블록을 불러와 캐시 기억장치의 해당 라인(10)에 저장한다. 이때 캐시 기억장치의 라인(10)에 ‘g, o, a, l’이 블록으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 데이터 블록은 삭제된다.

35. [출제의도]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은 주기억장치의 데이터 블록을 캐시 기억장치의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방식이고, ㉡은 저장될 라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임의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36.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은 ‘전보다 수준·정도 따위가 낮은 상태가 되었다.’의 의미로 ‘엔진의 성능이 떨어져서 큰일이다.’의 ‘떨어지다’와 같은 의미이다.

② ‘서로 붙었던 것이 각각으로 갈라지다.’의 의미이다.

③ ‘병이나 버릇이 없어지다.’의 의미이다.

④ ‘해, 달이 서쪽으로 지다.’의 의미이다.

⑤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가다.’의 의미이다.

** 인문 **

□ 출전: 이진우,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강의』

37.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한나 아렌트의 정치와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 가운데 하나인 ‘행위’가 바로 정치적 행위임을 밝히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규정한 뒤, 공적 영역의 모델을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찾는다. 또한 근대 이후 사회가 출현하면서 공적 영역이 소멸되고,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었음을 언급하며 근대 이후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① 한나 아렌트의 정치 이론의 변화 과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한나 아렌트의 정치 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

④ 한나 아렌트의 정치와 관련된 가설의 타당성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

⑤ 한나 아렌트가 분석하는 정치 체제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3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행위는 어떠한 강제나 강요도 없이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으로,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행위를 정치로 보았음을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것을 정치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④, ⑤ 2문단에서 행위는 생존을 위한 필연성의 구속에서 벗어난 공적 영역에서 언어적 소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비판하기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은 노동을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나 아렌트는 노동을 인간의 생존을 위한 활동,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으로만 보고 있다.

②, ④ 2문단에서 한나 아렌트는 행위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정치적 활동으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한나 아렌트는 작업을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만드는 활동으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한나 아렌트는 노동을 동물적 활동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은 노동을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 보고 있다.

4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서 사회가 출현하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경제 활동이 공적 영역으로 옮겨 갔고 이로 인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져 정치적인 행위의 공간이었던 공적 영역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 경계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⑤ 4문단에서 한나 아렌트는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할 뿐, 더 이상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공동의 문제를 위해 행위하지 않는다고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공자는 부자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정치로 인식하고 국가를 가정의 확장으로 보고 있다.

② 한나 아렌트는 사적 영역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③ 한나 아렌트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 맺음을 정치로 보지 않고 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④ 플라톤은 공적인 것을 위해 사적인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⑤ 한나 아렌트는 정치를 위해 사적인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

□ 출전 : 작자 미상, 「최현전」

4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최현과 유 소사와의 대화 중 ‘나이는 일곱 살이 옅고 ~ 홀로 울었나이다.’, ‘부친은 벼슬을 하시다가 ~ 찾아가는 길이었사옵나이다.’ 등을 통해, 최현과 완삼의 대화 중 ‘칠 년 전에 진주강 ~ 구제한 일이 없는가?’, ‘서촉으로 가려 하던 중 ~ 구제하였다 하리오?’ 등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43.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공신술은 ‘이 두 가지를 가지면 ~ 진동할 것이니’라며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일어날 일을 언급하면서 최현에게 천사옥감을 받을 것을 설득하고 있다.

④ 공신술은 본심을 숨기지 않았으며, ‘어찌 이같이 고집하는가?’라며 책망하고 있을 뿐, 자신의 본심을 숨긴 채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은 칠 년 전 최현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기에 이에 대한 보답으로 최현을 돕는다.

⑤ ㉠은 구걸하며 떠도는 최현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뿐, 최현이 초월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니다.

45.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멀지 아니하여 ~ 인신을 찰 것이니’라고 공신술이 말하는 부분에서 최현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최현이 천사옥감을 사양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고전소설 **